

3/21 월요일

골 3:12-15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¹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²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¹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²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¹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²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¹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²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³부름을 받은 것도 ⁴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⁵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일 4:16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골 2:2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고전 13:4, 13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13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요 14:27

27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롬 12:10

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고후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3:12¹ 거룩하게 되는 것은 속죄거나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1 장 각주 2 참조.

3:12² 직역하면, 속부들.

3:12³ 여기에서 ‘옷으로 입으십시오’는 겹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13¹ 직역하면, 여러분 자신을.

3:13²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서 사신다. 용서해 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미덕 중 하나이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미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14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16).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곧 신성한 생명의 바로 그 실질이다. 따라서 사랑을 옷으로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은 온전함과 완전함과 성숙한 미덕들을 함께 결합하여 매는 띠이다. 우리는 새사람을 입을 뿐 아니라(골 3:10) 새사람의 미덕들을 옷으로 입어야 하며(골 3:12), 이 모든 미덕들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어야 한다(골 3:14).

3:14² 혹은, 완전하게.

3:15¹ 그리스도의 화평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화평으로 그리스도는 두 백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사람으로 만드셨고, 이 화평은 복음의 일부가 되었다(엡 2:14-18). 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3:15² 혹은, 심판을 보도록, 다스리도록,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도록 할 때, 3 장 13 절에 언급된 불만은 해결된다.

3:15³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 또한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3:15⁴ 우리는 이 화평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았다. 합당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일 가운데 판정을 내리고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15⁵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몸의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화평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는 감사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유일한 심판관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보좌를 얻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강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평강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으며, 이 평강 안에서 새 사람인 교회생활이 보존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장할 때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 의하여 마음 상하거나 다른 이들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이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사역할 것이다. 지방 교회 안에서와 교회들 가운데서의 하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에 의하여 유지된다. 주님의 회복의 경영과 유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교회들과 전체로서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 아래 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급하시는 은혜요 중재하시는 평강이다.

...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전달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신성한 본질을 가져오게끔 우리의 생각을 위엣 것들에 두도록 우리가 격려되기 바란다. 그럴 때 특별한 방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실 것이며, 주께서는 새 사람을 건축하여 그분의 오심을 위한 신부를 예비하실 길을 갖게 되실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63 장)

3/22 화요일**골 3:15-16**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¹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²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³풍성히 ⁴거하도록 하되, ⁵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⁶서로 ⁷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⁸은혜로 하나님께 ⁷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엡 2:14, 17

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요 15:7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 2:7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각주에서 발췌

3:16¹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라는 구는 또한 ‘가르치고 권면하고’를 수식할 수도 있다.

3:16²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에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아들은 복음서들에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지체들인 사도들과 신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모두 그분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영적인 생명의 충만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이 단락과 비슷한 단락인 에베소서 5 장 18 절부터 20 절까지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충만이 그 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말씀이 곧 그 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요 6:63 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말씀으로 충만된 생활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영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부터 찬송과 노래로 흘러넘치시도록 해야 한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머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조된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하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그 영이 강조된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거듭 강조되며, 심지어 말씀이 그 영으로 여겨진다(엡 6:17).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각각 한 번씩만 언급된다(골 1:8, 2:5).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씻어 내기 위한 것이며(엡 5:26), 원수와 싸우기 위한 것이다(엡 6:17). 반면에 골로새서에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며 중심과 전부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골 1:25-27).

3:16^a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 이러한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주해야 한다.

3:16^a 직역하면, 집 안에 있도록, 내주하도록, 거주하도록.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넣어 주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16^b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뿐 아니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3:16^c 직역하면, 여러분 자신을.

3:16^d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가르치고 권면하고’와 ‘찬송함으로써’는 ‘거하도록’이라는 동사와 연결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길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3:16^e 요한복음 1 장 각주 14 와 각주 17 참조.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3 장 15 절과 16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도록 한다면 이 평강은 우리 가운데 모든 논쟁을 잠잠케 할 것이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주의와 철학과 실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다. 마치 경기나 경연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심판관이 필요하듯이 골로새인들에게는 모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잠잠케 할 심판관 곧 중재자가 필요했다. 바울이 문화와 주의와 실행을 다루는

골로새서에서만 그리스도의 평강의 내적인 중재를 언급한 것은 중요하다. 이 중재자는 우리의 문화에 근원을 둔 모든 의견들을 잠잠케 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의견을 잠잠케 할 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들을 대신한다. 우리의 의견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더욱이 오늘날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산 영이신 그리스도의 문제이다. 우리에게겐 주의나 철학이나 실행이나 규례가 필요 없다.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 형제들은 아내를 사랑하려 할 필요가 없고 자매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는 「주 예수여, 당신이 여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상은 우리의 철학과 금욕주의와 의견과 주의를 죽일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문화의 영향을 끝낼 것이다. 그러면 문화적인 사람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이 될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33 장)

나는 바울의 작가로서의 기술(記述)을 좋아한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한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이 살아 있는 한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당신은 아마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안에서

중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애호 대신에 그리스도의 중재를 가질 것이다. 우리의 의견과 관념과 사고와 판단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질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29 장)

3/23 수요일

골 3:16-17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¹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롬 10:17

17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살전 1:8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울려 퍼져 나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도 각처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엡 5:26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요 15:7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3:17¹ 이름은 인격을 나타낸다. 주님의 인격은 그 영이다(고후 3:17 상). 어떤 일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그 영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골로새서 3 장 16 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한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 직후에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라고 말한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말씀 전에 언급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성경에 계시된 기본 원칙에 관계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된다. 하나님은 분열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분열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감소시키며 심지어 완전히 멈추게까지 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케 하심으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 평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수직적인 평강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의 수평적인 평강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규례들과 예배와 삶의 여러 방식들을 폐하셨다. 이러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바벨의 효력을 없이 하셨다. 바벨에서 인간은 혼돈되고, 혼동되고, 분열되고, 흩어졌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단체의 사람이 분열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하여 바벨의 혼돈과 분열이 소멸되었다. 그분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평강을 모두 이루셨다. 그로써 오순절 날 그리스도는 연합하는 영으로 믿는이들 위에 임하실 수 있었으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산출하셨다. 오순절 날에 많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분열을 없이 하셨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파괴하고 분열을 산출했다. 이러한 이유로 분열된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많은 이들은 예배당과 성당과 교파의 건물 안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사회 생활이나 정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아들 안에서 그 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하심이 결핍된 이유는 평강과 하나의 결핍에 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중심도 계시도 없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의 회복 안에서의 상황은 이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넘치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동안 회복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해방된 주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라.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많은 이유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 안에서의 이 하나됨과 조화를 단지 교회가 함께 모이는 대집회에서 뿐 아니라 또한 여러 지방 교회들 안에서도 체험한다. 집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가지며, 훈육되고, 양육되고, 빛 비춤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중재하고, 하나됨과 조화가 총만한 상황 안에서 우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장소가 된다. 나의 영 깊은 곳에서 나는 집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계시의 장소임을 깨닫는다.

3 장 16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집 안에 있는 것,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집을 만들 수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

우리 모두는 많은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에게 적절한 방을 드리지 않았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한정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집을 만드시도록 말씀에게 자유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첫째인가, 아니면 당신이 첫째인가? 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항상 첫째의 자리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말씀으로 첫째가 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훨씬 더 자주 우리 자신이 첫째일 것이다. 우리는 은밀한 방법으로 자신을 위한 첫째 자리를 지킬

것이다. 외적으로 우리는 마치 첫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마련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첫째 자리는 은밀히 우리를 위한 것이다.

가령 당신이 주 예수께서 청년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9 장 16 절부터 22 절을 읽고 있다 하자. 당신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들을 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첫째인지 - 자신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 에 대한 시험일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첫째 자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배웠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서, 「주여,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주여,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를 위하여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 됨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첫째 자리를 드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 - 빛 비춤, 영양을 공급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함, 강하게 함, 씻음, 건축함, 완전케 함과 훈육함 - 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64 장)

3/24 목요일

골 3:18-4:1

18 ¹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합니다.

19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20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노예들이여, 모든 일에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과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23 무슨 일을 하든지 ¹마음에서부터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24 여러분은 주님께 ¹유업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²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25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4:1 주인들이여,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노예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 주십시오.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롬 8:17

17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행 26:18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벧전 1:4

4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3:18¹ 이 절부터 골로새서 4 장 1 절까지는 에베소서 5 장 22 절부터 6 장 9 절까지의 자매 단락으로서, 믿는 이들의 윤리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정상적인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이 충만하게 되어 이루어진 윤리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골로새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최고 수준의 윤리적인 관계가 실현되어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락에 있는 각 요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관련 각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3:23¹ 직역하면, 혼.

3:24¹ 에베소서 6 장 8 절에서는 이 요점이 여기만큼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서 유업은 믿는 이들이 상속받을 것을 가리킨다(롬 8:17, 행 26:18, 벧전 1:4). ‘유업을 보상으로’라는 말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격려제로 유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신실하지 않은 이들은 분명히 이 보상을 놓칠 것이다(마 24:45-51, 25:20-29).

3:24 직역하면, 노예로서 섬기는.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우리는 새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어야 함을 보았다. 이렇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해야 한다. 이 평강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말을 하게 해야 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유로운 통로를 갖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중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3 장 18 절부터 4 장 1 절까지에 기술된 바와 같은 합당한 일상 생활을 갖게 될 것이며 합당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 상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29 장)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인간 생활을 통하여 표현되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이들의 윤리적인 관계에 관련된 3 장 18 절, 4 장 1 절과 자매 구절인 에베소서 5 장 22 절, 6 장 9 절에서 볼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의 강조점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몸의 표현을 위한, 영이 충만한 윤리적 관계의 필요에 대한 것이고, 골로새서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머리로 붙잡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가장 높은 윤리적인 관계가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생활이 아닌 인간의 생활 안에서 표현될 것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택한 자들인 우리가 그 아들의 표현이 되도록 명하셨다. 「주 예수여, 나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

힌두교나 불교나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수준 낮은 인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결혼이나 합당한 가정생활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독신으로 남아 있기를 좋아하며 일종의 천사 같은 생활을 살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천사 같은 생활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주인과 종인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하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가져야 한다.

...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생활은 인간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을 가져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인간생활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이다. 나는 나의 아내와 자녀와 손자들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치신 모든 교훈들에 대하여 감사한다. 해가 감에 따라 나의 인간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배운 공과들에 더욱 더 감사한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2 절부터 25 절까지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24 절에서는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요점이 에베소서 6 장 8 절에서는 여기서 만큼 분명치 않다. 믿는이들에게는 유업이 있다(롬 8:17, 행 26:8, 벰전 1:4). 유업의 상은 주께서 믿는이로 하여금 그분께 대한 봉사에 신실하도록 하나의 자극제로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이 상을 놓칠 것이다(마 24:45-51, 25:20-29).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30 장)

3/25 금요일

골 4:2-6

- 2 ¹기도에 ²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³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 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¹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 4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 5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¹시간을 아끼십시오.
- 6 ¹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항상 ²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행 1:14

14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엡 5:15-16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16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엡 4:29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각주에서 발췌

4:2¹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 장부터 3 장까지에서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4:2² 즉, 끊임없이, 견고하게, 간절히.

4:2³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느슨해서는 안 되고 깨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 생활이 유지된다.

4:3¹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4:5¹ 에베소서 5 장 각주 16 참조.

4:6¹ 소금은 음식을 맛나게 하고 풍미를 돋운다.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을 때, 우리는 서로 화평을 유지한다(막 9:50).

4:6² 에베소서 4 장 각주 29 참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라이프스티디에서 발췌

4 장 2 절에서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기도에 반대된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조류와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못 한다면 하류로 떠내려갈 것이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흐름을 거슬러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심지어 기도를 위해 매일 어떤 시간을 할애해 둘 필요가 있다. 당신은 기도할 부담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명하지 말라. 부담이 없는 것 같을 때나 주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는 것 같을 때일지라도 기도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많이 있다. 왜 주님께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가? 만약 주님께 무엇을 말할지를 모른다면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여, 당신께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이점에 있어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때때로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어떤 순수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기도할 부담이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의 기도는 순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담 없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 할 말이 없다고 그분께 말할 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주님께 자신을 열어드리고 할 말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신선한 영적 공기를 들이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보전된다.

...

4 장 5 절과 6 절에서 바울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고 말한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생명을

공급할 모든 좋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현명한 것이다. 이 악한 시대에서 모든 날은 우리의 시간을 파괴하고 망치고 낭비시키는 해롭고 독 있는 것들로 가득차 있는 악한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 모든 유리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 현명하게 행해야 한다.

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각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관계 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했다. 나는 생명을 공급하여 그로 인해 마찰을 피할 충분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 공급이 없는 대화에 빠짐으로써 시간을 낭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 행한다면 시간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이야기에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 버렸다.

시간을 되찾는 가장 좋은 길은 힘써 기도하며 깨어 있고 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기회들을 붙잡을 것이다. 기도에 힘쓰지 않거나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기회들을 붙잡지 못할 것이다.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생명의 공급이 전혀 없는 대화로 반 시간을 낭비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고, 그분의 지혜를 위해 주님을 추구하기를 배워야 한다.

...

4 장 2 절부터 6 절까지에서 바울은 다섯 가지 중요한 것들 - 기도, 깨어 있음, 지혜로 행함, 시간을 되찾음, 은혜와 함께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 - 을 다루고 있다. 이 구절들의 요점이 기도인지 시간을 되찾는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점으로 어떤 것을 택하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간을 되찾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귀중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순간을 되찾고 모든 기회를 붙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활을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적셔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음으로써, 지혜로 행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은 어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주님의 철저한 다루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금으로 고르게 한 은혜의 말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은 마음에 들게 하고 맛을 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배우고 실행하기를 바란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30 장)

3/26 토요일

골 4:7-18

7 1 두기고가 나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8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릴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9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10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마가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이미 당부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영접해 주십시오).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12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¹성숙되어 ²건고히 서도록, 그리고 ³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13 내가 그에 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14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데마도 문안합니다.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¹그의 집에 있는 ²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17 그리고 아킵보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 주십시오.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살전 5:27

27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 주십시오.

계 1:11

11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3:22

22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각주에서 발췌

4:7¹ 4 장 7 절부터 17 절까지에 기록된 사도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사도 시대에 실행되었던 새사람이 사도의 일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 사도는 믿는 이들이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누림으로 추구하도록 격려했다. 교회들 간의 왕래를 통해, 우리는 실질적으로 새사람의 생활을 체험한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새사람의 생활의 실재이시다.

4:12¹ 혹은, 완전하여.

4:12² 여기의 ‘건고히 서도록’은 헬라어에서 수동태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자리에 놓이다’, ‘드리지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며, 골로새서 1 장 28 절에 있는 ‘드리기’와 일치한다.

4:12³ 골로새서 1 장 각주 9 참조.

4:15¹ 어떤 사본들에는 ‘그녀의’로, 또 다른 사본들에는 ‘그들의’로 되어 있다.

4:15² 눔바의 집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였으며, 그 교회는 눔바의 집에서 모였다. 교회가 성도의 집에서 모여 집회하면, 참석하는 모든 믿는 이가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집회들은 성도들 사이의 상호 교통을 강화하여 준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던 새 사람은 문화와 사회적 지위에 따르면 헬라인, 유대인, 할레당, 무할레당, 야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적인 바와 같이 새 사람의 실제적인 구성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가 새 사람의 유일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의 부분이 되는 믿는이들간의 차이는 전혀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들간의 차이,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사이의 차이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것은 편지를 읽는 것에 관한 바울의 말 -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4:16) - 에서 증명된다.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기록한 것은 라오디게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으며 라오디게아인들에게 기록한 것은 골로새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어떠한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근한 접촉을 내포하고 있는가!

...

그의 교통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그의 매임을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다.(18 절). 그는 이 서신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이것은 성도들이 새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을 위한 그들의 분깃이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골로새서 스터디, 31 장)

3/27 주일

시 2:1-2, 4, 6, 12

1 어찌하여 민족들이 소동하며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땅의 왕들이 나서고 통치자들이 서로 모의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을 대적하며

4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신다.

6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시리라.

12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분의 진노가 느닷없이 불붙기 때문이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시 46:10

10 “너희는 잠잠히 머물며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 받고 땅에서 높임 받으리라.”

마 28:19-20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행 28:31

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계 22:21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영한 동번)

#274 (#358), #579 (#799),
#304 (#403), #559 (#775)

추가로 읽을 말씀

라이프 스터디 빌립보서
메시지 29, 64, 30, 31

2022. 3. 21 ~ 2022. 3. 25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8 장